

첨단3지구 에너지 산단 조성 본격화

광주도시공사 연료전지 발전사업 '탑솔라 컨소시엄'과 업무 협약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산단 박차

광주도시공사가 첨단 3지구 에너지 자립 산단 조성 사업을 본격화 한다.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14일 첨단 3지구 연료전지 발전사업(1단계 39.6MW 규모)을 위해 민간 사업자인 '탑솔라 컨소시엄'과 사업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첨단 3지구 연료전지 발전사업은 광주시 첨단 3지구 산업단지 내 39.6MW급 연료전지 발전소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광주도시공사는 지난해 12월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및 분산 전원 활성화를 위해 민간사업자를 공모해 지난 2월 탑솔라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탑솔라 컨소시엄은 ㈜탑솔라, KB증권, 그린웰건설 3개사로 구성됐으며, 이번 협약식을 통해 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 간 역할 등 필수 기본사항을 확정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광주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인 '탑솔라 컨소시엄'은 지난 14일 첨단 3지구 연료전지 발전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광주도시공사는 첨단 3지구 연료전지 발전소 건설과 운영을 통해 '2045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 광주 건설' 사업에 기여하고 산단 내 소비 에너지를 직접 생산과 공급이 가능한 에너지 최적화 산단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민근 도시공사 사장은 "연료전지 발전사업 우

선협상대상자 사업협약 체결로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른 만큼 철저한 사업 관리를 통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에너지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역위생매립장

공사 마무리 2-2단계 시설

광주환경공단 사전 점검

광주환경공단은 "공사가 완료된 광역위생매립장 2-2단계 시설이 하자 없이 인수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광주시 종합건설본부가 조성하고, 광주환경공단이 수탁-운영하게 될 광역위생매립장 2-2단계 매립시설은 지난 3월 20일 공사를 마치고 준공 절차를 밟고 있다. 이번에 준공하는 매립시설은 매립용량 197만㎥로, 오는 2040년까지 매립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공단은 그동안 하자 없는 최고의 매립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시공사를 포함한 내·외부 전문가로 TF팀을 구성하고, 총 2회에 걸쳐 사전점검을 실



김성환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오른쪽)이 공사가 완료된 광역위생매립장 2-2단계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시한 결과, 18건을 보완 요구했다. 신규시설 사전점검에 나선 김성환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은 "2-2단계 매립시설을 인수하게 되면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효율적 운영을 통해 깨끗한 광주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

다"고 말했다. 광주환경공단은 지난해 연말 환경부 주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실태 평가에서 전국 2위로 선정되는 등 전국 최고의 관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협동조합 육성 지원 수행기관 공모

26일까지 접수...7200만원 지원

광주시는 "오는 26일까지 '2023년 협동조합 설립 및 육성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행기관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협동조합 설립 및 육성지원' 사업은 광주시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목적으로, 총 사업비는 7200만원이다.

주요 사업 내용은 ▲협동조합 설립 및 기초경영 지원 ▲협동조합 역량강화 지원 ▲협동조합 특화 모델 발굴·육성 지원 ▲협동조합간 연대·협업 활성화 지원 등이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광주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활동하며 협동조합에 대한 전문지식과 활성화 사업 수행능력을 갖춘 공공·비영리 법인·단체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오는 26일까지 광주시

일자리정책과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수행 기관의 수행능력, 사업계획 적정성, 예산편성 적절성 등 경험과 전문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시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중 최종 선정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일자리정책과(062-613-3603)로 문의하면 된다.

최대범 광주시 일자리정책과장은 "협동조합의 체계적 지원을 통해 자주·자립·자치적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경험과 능력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맞춤형 기업지원 프로그램 참여하세요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입주기업 대상 5개 분야 운영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은 "입주기업 비즈니스 역량 강화를 위해 광주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및 입주예정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국비 지원사업인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 중 기업 비즈니스 역량강화 사업의 하나로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기술 지원(6개사), 사업화 지원(5개사), 종합패키지 지원(3개사), R&D기획 특화 컨설팅 및 교육(4개사), 융복합R&D기획 지원(2개사) 등 5개 분야 10개를 운영한다.

특히 융복합 R&D 기획지원은 입주기업들의 수요에 기반해 시행하며, 전문 컨설팅 기관 매칭과 분야별 전문가 풀(Pool)을 활용한 컨소시엄 구성부터 정부 사업 수주까지 R&D기획 전

과정에 걸쳐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대상은 접수 마감일 기준 광주경제자유구역 입주 완료기업이거나, 입주 예정기업이다.

광주경제청장은 공모에 앞서 사업 수행기관인 광주테크노파크와 함께 지난 3월 28일부터 11일까지 광주경제자유구역 전체 입주기업을 방문해 지원 프로그램,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결과를 지원사업에 반영했다.

오는 24일까지 광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과 지원신청서를 참고해 접수하면 되고, 각 프로그램별 중복 신청도 가능하다.

광주경제청은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기업을 선정하고, 오는 10월 30일까지 6개월간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진철 광주경제청장은 "광주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입주기업의 성장과 안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사업공모에 입주기업과 입주예정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시민 주도 자원순환마을 20곳 공모

28일까지...폐기물 수거차량 등 지원

광주시와 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오는 28일까지 '투명 페트병 재활용 100% 쓰레기 ZERO 캠페인'을 함께할 마을 공동체 20여 곳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광주시와 광주지속협, 광주자원순환협의회, ㈜희망자원, 롯데캐미컬, 광주교육대학교 공동 추진하며, 마을과 학교 등 거점공간에서 시민이 주도적으로 투명페트병을 모으고 자원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모집 대상은 투명페트병 모으기에 동참할 마을 공동체로 주 1~2회 지정된 장소에서 캠페인을 펼칠 수 있는 거점공간이 있어야 한다. 거점 공간은 실내외 공간, 주차장이나 유휴 공간 등 어디든 활동 가능한 곳이면 된다.

마을활동 기간은 5월 둘째 주부터 10월 말까지다. 활동한 마을에 대해서는 활동비 지급, 교육보조금 '재활용 통장'을 배포하고, 폐기물 전용 수거차량을 지원해 수거활동을 돕는다.

광주시는 모집 기간에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규 지원 단체는 교육, 컨설팅에 필수로 참여해야 한다.

참여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홈페이지와 홍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광주시는 사회 구성원의 참여를 통한 자원순환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자원순환 정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협의회 운영, 토론회 등 실천사업과 함께 12개 마을공동체, 19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해 투명페트병 6000kg, 종이팩과 알루미늄캔 1560kg을 모아 재활용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광주시, 중요정책 부패영향 사전진단제 시행

수립 단계부터 위험요인 차단

광주시는 "중요정책의 부패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부패영향 사전진단제를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광주시가 최초로 마련한 부패영향 사전진단제는 재정지원, 지역개발사업 등 중요 정책에 특례나 부정수급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사전에 진단·개선하기 위한 제도다.

업무담당자는 기관단계에서 부시장 이상 결재 문서 서식에 자동 적용되는 체크 리스트에 따라 ▲특혜발생 가능성 ▲이해충돌 가능성 ▲부정수급

방지성을 점검해야 한다.

그동안 입법과정에서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를, 사후통제 과정에서 적발·처벌 위주의 처분이 이뤄졌다면, 이번 제도 시행으로 행정 전반에 촘촘한 부패방지 장치를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이갑재 광주시 감사위원장은 "부패영향 사전진단제는 정책 입안자가 시정의 중요정책을 결정할 때 부패위험요인에 대해 한번 더 숙고하게 함으로써 광주시정이 시민에게 신뢰를 받고 공직자의 청렴의식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